

대입 학생부종합전형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이경아(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대학입학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으나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주요 내용은 학생부종합전형이 특목고, 자사고 같은 특정 고교 출신 학생에게 유리하다거나, 사회·경제·문화적 배경이 좋은 가정의 자녀에게 더 유리하다는 내용임. 이에 대해 학생부종합전형이 진짜 귀족전형인지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 확인이 필요함. 서울대와 경희대의 자료에서 두 대학 모두 정시에서 일반고 합격자의 비율이 더 떨어지는 것을 살펴보면 이것이 단지 학생부종합전형의 문제만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오히려 자율형사립고 출신 학생의 합격비율이 학생부종합전형보다 수능중심전형에서 눈에 띄게 높은 것을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학생부종합전형은 수능에 비해 교육적 타당성과 실질적 공정성이 더 우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미래역량을 키워가기 위한 입시의 긍정적인 방향임. 학생부종합전형의 틀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전형의 객관성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다음의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함.

첫째, 입시부담 완화를 위한 평가방식의 개혁이 필요함. 둘째,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실화를 추진해야 함. 셋째, 학교생활기록부의 목적과 기능을 교육적 관점에서 다시 정립하고 재구조화 할 필요가 있음. 넷째, 대입 경쟁에서 뒤처진 학생에게 어떤 기회를 더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추가적으로, 교사가 학생부를 진솔하게 작성할 수 있는 환경 구축, 대학이 학생부종합전형의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노력,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기준 적용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법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음.

결론적으로 대입이 학생의 진학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사회의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어떻게 키워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이라는 인식 공유가 필요함.

-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제2의 정유라’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학생부종합전형임**
- 정유라씨가 지원한 체육 특기자전형은 금수저 특혜 시비를 일으킬 여지가 충분히 있음
 - 이화여대의 체육 특기자전형에서는 1단계는 대회 수상실적으로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수상실적의 80%와 면접 20%를 합산하여 선발하고 있음¹⁾
 - **이화여대는 체육 특기자전형에서 학생부를 전형요소로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음**
 - 특기자전형에 학생부를 반영하고 학생부에 기록된 근거자료를 활용하면 현재 드러나고 있는 특기자 특혜 시비 등 예체능특기자 교육의 많은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특기자전형은 폐지하되, 학생부 자료를 전형요소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I. 대입 학생부종합전형 시대의 도래

□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이 대학 입시의 대세가 되고 있음

- 학생부종합전형이 대입 이슈로 떠오르는 것은 주로 학종으로 운영되는 수시모집의 선발 비율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임
 - 학생부종합전형은 수능 성적이 아닌 고등학교 3년 동안의 생활을 기록한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임
- 「2018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²⁾에 따르면 2018학년도 대입전형에서 수시모집 비율은 73.7%로 확대됨
 - 전체 모집인원은 2017학년도보다 3,420명 감소하지만, 수시모집에서 전년 대비 3.8% 증가한 73.7%를 선발하고, 정시모집은 전년 대비 3.8% 감소한 26.3%를 선발함
 - 3개년 추이를 살펴보면 **수시모집 비율은 꾸준히 증가**(2016학년도 66.7% → 2017학년도 69.9% → 2018학년도 73.7%)하고 있고 **정시모집 비율은 감소**(2016학년도 33.3% → 2017학년도 30.1% → 2018학년도 26.3%)하고 있음
- **수시모집³⁾은 학생부⁴⁾를 위주로 하는 ‘학생부교과전형⁵⁾’과 ‘학생부종합전형⁶⁾’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요 대학들이 잇따라 학생부종합전형의 선발 비중을 확대하고 있음**

1) 이화여자대학교 2015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처

2) 2018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보도자료(2016.4.28.)

3) 수시모집에서는 학생부와 논술, 면접 및 구술고사, 실기 등의 전형요소에 의한 전형이 가능하며 기본적인 전형요소로 학생부가 활용되는데 학생부는 3학년 1학기 성적까지만 반영함

4) 학생부에는 학생의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교내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진로희망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 교과학습발달상황(교과 성적),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10가지 사항이 기록됨

5) 대학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학생부의 교과 성적 반영비율이 50% 이상이면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분류됨

6) 서울대의 경우 학생부종합전형 1단계 서류평가는 학생부를 통해 학업능력(교과영역), 자기주도적 학업태도(이하 비교과영역), 전공분야에 대한 관심, 지적 호기심 등 창의적 인재로 발전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2단계 면접 및 구술고사에서는 지원한 전공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 적성 및 학업 능력을 평가함

- 2018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서울대의 경우 2018학년도에 수시모집 전체인 78.5%의 학생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할 예정이며, 서울시내 주요 15개 대학⁷⁾도 40%이상의 학생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할 예정임

〈표 1〉 전형유형별 총 모집인원

구 분	수시모집		정시모집		계(명)
	모집인원(명)	비율(%)	모집인원(명)	비율(%)	
2018학년도	259,673	73.7	92,652	26.3	352,325
2017학년도	248,669	69.9	107,076	30.1	355,745
2016학년도	243,748	66.7	121,561	33.3	365,309

II.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들

□ 최근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하나는 학생부종합전형이 특목고, 자사고 같은 특정 고교 출신 학생에게 유리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경제·문화적 배경이 좋은 가정의 자녀에게 더 유리하다는 것임
 - 둘 다 부모의 배경과 그로 인한 상대적 이익에 대한 문제이지만, 전자는 고교등급제에 대한 의혹에, 후자는 사교육비 문제에 더 접근되어 있음

□ 근래에 제기되는 문제들은 좀 더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학교 내에서 성적 상위권 학생들의 진학 실적을 높이기 위해 학생회 임원이나 상장을 몰아주는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더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또,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학생부의 질과 양, 학생의 성장스토리가 달라진다는 지적도 있음
 - 심지어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가 집단적으로 동원되어 성적까지 조작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논란은 더욱 확대되었음

□ 학생부종합전형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논란은 입시정책이 얼마나 세심하게 추진되어야 하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계기임

- 수능을 확대하자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공교육 정상화’라는 학종의 도입취지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음
- 수시전형에 대한 논의가 참여정부에서부터 시작됐고 당시에 빈약했던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이 이제야 비로소 이행되고 있는 단계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음

7)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이하 가나다 순)

Ⅲ. 학생부종합전형이 정말 귀족전형인가

□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불만은 ‘금수저 전형’, ‘귀족 전형’이라는 말과 함께 이
슈가 되고 있음

- 이는 부모의 사회·경제·문화적 지위에 따라 자녀의 출신 대학이 정해진다는 의미임
- 학생부종합전형이 이러한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함

□ 금수저 논란은 학생부종합전형만의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수능중심전형이 금수저 현상을 더
욱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서울대의 경우, 2016학년도 신입생 선발에서 수시 모집은 모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운
영되었음
- 서울대에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의 출신고교는 일반고 50.6%, 특목고(과학
고/영재고, 외국어고/국제고, 예술고/체육고)와 자사고(자율형사립고)가 44.3%, 자공고
(자율형공립고) 3.8%, 특성화고 0.2%, 기타 1.1%로 나타나고 있음⁸⁾

<표 3> 2016학년도 고교유형별 신입생 현황

구분		일반고	과학고/ 영재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자사고	자공고	특성화고	기타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	50.6%	12.8%	10.4%	6.9%	14.2%	3.8%	0.2%	1.1%
	특목고와 자사고 소계 : 44.3%								
	수능중심 전형 (정시)	47.5%	1.1%	14.5%	0.2%	32.9%	3.4%	-	0.4%
	특목고와 자사고 소계 : 48.7%								
경희대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	73.9%	0.6%	6.6%	0.7%	2.4%	3.8%	10.7%	1.3%
	특목고와 자사고 소계 : 10.3%								
	수능중심 전형 (정시)	62.5%	0.2%	7.8%	6.5%	16.5%	4.0%	0.7%	1.8%
	특목고와 자사고 소계 : 31.0%								
2015년도 고3 재학생 비율		71.9%	0.2%	1.3%	1.1%	2.5%	5.2%	16.8%	1.0%
			특목고와 자사고 소계 : 5.1%						

- 한편 경희대의 경우 2016학년도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일반고 73.9%,
특목고와 자사고가 10.3%, 자공고 3.8%, 특성화고 10.7%, 기타 1.8%임⁹⁾
- 2015년 고교 3학년 재학생 중 일반고 재학생의 비율은 71.9%임¹⁰⁾

8) 2016년도 서울대학교 정시모집 선발 결과. 서울대학교 보도자료.(2016.1.14.)

9) 2016학년도 입학생 고교유형 분포. 경희대학교 입학처 제공자료(2016.10월 제공)

- 서울대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선발된 신입생 중 일반고 출신 학생이 50.6%를 차지한다는 것은 고교등급제의 의혹을 받을 수도 있음
- 그러나 두 대학 모두 수능중심 전형에서 일반고 합격자의 비율이 더 떨어지는 것을 살펴보면 이것이 단지 학생부종합전형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음
- 오히려 자사고(자율형사립고)의 수능중심전형의 합격비율이 눈에 띄게 높아지는 현상을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대입에서 ‘공정하다’ 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 그렇다면 대학 입시에서 공정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만약 그것이 정량화를 의미한다면 숫자로 대학의 순위를 매기고 소수점 차이로 학생을 한 줄로 세우는 것을 말할 것임
 - 그러나 대입 전형으로서의 공정성을 생각해 본다면, 수능처럼 단 하루 시험의 점수로 전국 학생들을 줄 세우는 이것이야말로 공정하지 못한 전형일 것임
 - 그에 비해 학생 각자의 환경, 성장 과정, 발전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은 수능에 비해 교육적 타당성과 실질적 공정성이 더 우월하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은 과거 수능 체제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문제 풀이 위주의 수업 방식에서 탈피하여 고교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의 다양화와 이를 통한 실질적 진로 교육을 유도하고 있음
 - 실제 학교에서 학생들의 토론이나 발표 형태의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학생부 작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도전하는 자세를 가지며, 독서 활동을 바탕으로 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워 나갈 수 있음
 -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은 예술적 소양, 글로벌 리더십, 협업과 협력 등의 다양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기도 함
- 필자가 인터뷰한 강북의 일반고에 근무하는 A교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음

“공정하다는 것이 수능으로 줄 세우기를 의미한다면, 강북의 일반고에서 그 공정한 방법이 행해지던 시절에는 도저히 합격할 수 없었던 대학에 최근에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학생들을 진학시키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풀이하실 수 있을까요?

소위 평범한 부모 밑에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학교 구석구석에서 머리를 맞대고 저학둑끼리 동아리를 만들기도 하고, 학교에서 토론대회를 한다고 생전 안 보던 책이며 논문을 뒤지고, 봉사활동을 한다고 함께 땀범벅이 되어 뛰어다니는 것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과정을 거치면서 얼마나 성장하는지 얼마나 자신감을 갖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교육적으로 부당하고 공정하지 않다면, 소위 옳은 방법의 전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 이러한 상황이 A고교와 같은 소수의 일반고에서만 일어나는 변화라 할지라도 다른 학교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임

□ **학종 문제는 어느 한 쪽으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음.**

- 선발의 공정성에 대한 초점이 대학에 있는 경우 선발철학의 재정립, 입학사정관의 평가 전문성 강화 등이 주된 논점이 됨
 - 이에 대한 해결책은 대학의 집단적 노력과 자체적인 정화 노력, 사회적 제재, 교육부의 대학 제재나 지원 등의 방법으로 가능함
 - 또한 대학의 평가 능력이나 사회적 책무성의 문제는 입학사정관제 도입 당시에 가장 많이 공론화되었음
- 반면 대학의 평가 능력과 공정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접근한다면, 논의의 초점은 '고교 교육'으로 옮겨가게 됨
 - 성장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려는 대학이 개별 대학의 인재상과 부합하는 학생의 전형자료에 주목하게 됨
 - 학생부에 무엇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학생이 제출한 학생부에서 무엇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지 등에 대학의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임
 - 따라서 논의의 초점을 고교 교육으로 둘 경우, 학생이 재학한 고교의 교육과정 운영, 학생의 수업 참여와 선택 교과 이수 등 고교 교육에서 학생의 학습 성과를 향상시키는 교육의 본질과 이를 구현할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음

IV. 학생부종합전형의 개선 방향

□ **대입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흐름을 유지하며 평가의 객관성을 보강하는 관점에서 다음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근래 대입제도를 수능 시대, 입학사정관제 시대, 학종 시대로 구분해서 보면 사교육에서부터 공교육으로의 방향 이동, 정량적 결과 평가에서 정성적 과정 평가로 변화하는 흐름을 읽을 수 있음
- 이러한 흐름은 큰 틀에서 보면 미래역량을 키워가기 위한 긍정적인 방향이며, 이러한 방향의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첫째, 입시부담 완화를 위한 평가방식의 개혁이 필요함
 - 문제 풀이식 시험이 아니라 학생이 주도하는 수업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쟁이 아니라 협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평가방식을 혁신하는 것임
 -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부담이 증가된다고 하더라도 변화된 수업과 평가 속에서 미래역량을 키워나가는데 필요한 노력이라면 이러한 학습부담은 적극적으로 견뎌내야만 할 것임

○ 둘째,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실화가 필요함

- 학생부의 내실화는 사실에 근거한 충실한 학생부 기록의 문제뿐만 아니라, 고교 교육을 어떻게 내실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도 포함해야 함
- 학생 주도의 참여수업을 확대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학생이 그들의 진로에 맞게 선택한 교육과정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등 학교 수업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함
- 이러한 변화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임
- 다행스럽게도 학생부 전형이 강화되면서 일부 일반고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재설계, 수업과 평가의 혁신적 노력들이 시작되고 있음
- 이러한 노력들은 학생부종합전형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음
- 현재로서는 변화하는 일반고에서의 수업과 평가 혁신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그러한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함

○ 셋째, 학교생활기록부의 목적과 기능을 재구조화 할 필요가 있음

- 그간 학생부는 새로운 정부의 입시정책이 변할 때마다, 기록항목이 추가되면서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구조와 일관된 논리를 상실하였고, 그 결과 학생부가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자료가 되었음
- 학생부의 목적과 기능을 교육적 관점에서 다시 정립하고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음

○ 넷째, 대입 경쟁에서 뒤쳐진 학생에게 어떤 방법으로 또 다른 기회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입시를 고교 재학생 위주로 운영할 경우, 경쟁이 과열되고 학생들 각각의 서로 다른 장점과 잠재력이 묻힐 가능성이 존재함
- 또한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의도치 않게 사교육비가 증가하게 되는 등,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음
- 수시와 정시, 학생부 위주와 수능 위주의 전형비율, 학생부 전형의 교과와 비교과의 반영 비율 등 입시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학생마다 다른 강점이 있고 그에 맞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 위주의 전형을 각각 합리적인 비율로 운영해야 할 것이며 그 실행 방안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지점임

□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교사가 학생부를 진솔하게 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함

- 학생부 일부 내용의 경우 NEIS¹¹⁾상에서의 최대로 기록 가능한 바이트 수¹²⁾가 많고, 이로 인해 교사의 부담과 교사 간 학생부 기록의 질 차이가 확대됨

11) 교육행정정보시스템(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를 통하여 전산화된 학생부를 작성하고 관리함

12) 한글을 2바이트로 하는 통상적인 계산법과는 달리 NEIS상에서는 한글은 3바이트로 계산함. 최대 3,000 바이트(한글 1,000자)

- 따라서 최대 기록 바이트 수를 줄이는 과정을 통해서 교사 간 차이를 줄이고, 교사들의 업무량을 줄일 필요가 있음
- 제도적으로 학생부 I 13)은 학생들이나 학부모에게 열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 면접을 준비시키기 위해 학생부Ⅱ를 열람시키는 사례가 있음
- 이는 결국 학생부를 솔직하게 쓸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으므로 학생부Ⅱ는 학생들에게 유출시키지 않도록 금지하는 조항을 교육부훈령14)에 넣을 필요가 있음

○ 대학에서도 학생부종합전형의 결과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올해 서강대 입학처가 고교 교사들을 초청하여 학종의 평가시스템을 공유한 사례15)는 학종의 공정성 문제를 정면 돌파하려는 시도임
- 다른 대학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학종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고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 고교 교육정상화에 기여하는 정보공개의 방식이 될 것임

○ 학생부종합전형의 수능 최저기준 적용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함

- 현재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학생부의 교과와 비교과, 수능까지도 준비해야 하는 삼중고의 부담을 안고 있음
- 이를 해소하여 학생들의 과도한 학업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음

○ 대입은 단순히 학생의 진학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미래사회의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어떻게 키워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이라는 인식 공유가 필요함

- 학생부종합전형은 이전에 해왔던 다른 전형과 비교해 봤을 때, 단순한 지식 측정보다는 학생의 꿈과 소질을 가장 많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전형이며 결과 중심 평가가 아니라 충실한 수행의 과정을 강조하는 ‘과정 중심 평가’임
- 반면에 수능은 고교 교실을 문제 풀이 위주의 수업, 지식전달에 몰두하는 학교 현장으로 변질시켜 왔음
-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인해 공부만 하던 학생들이 교내 활동에 참여하고, 잠자던 수업 시간이 깨어있는 시간으로 바뀌는 긍정적 장면들이 학교 현장에서 목격되고 있음
- 학생 모두가 학습과 배움에 대한 이유를 가질 때, 내적 동기로서의 공부하는 즐거움이 생겨날 수 있으며 우리 교육은 ‘문제를 푸는 존재’를 넘어 ‘문제를 찾는 존재’를 길러내는데 힘을 기울여야 함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3) 학생부는 학교생활기록부 I 과 학교생활기록부Ⅱ의 두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음. 학생부Ⅱ(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는 학생 열람이 불가함

14)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훈령 제169호

15)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63011>(검색일 2016년 11월 3일)